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12. 11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4~12/8)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비둘기적 평가와 미국 11월 제조업 지표 부진 등 경기 위축세에 Fed의 금리인하 기대감 이어지며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 관련 낙관적 전망이 과도했다는 인식 등에 달러 약세 되돌림 나타나며 상승 전환
- 중반, 매파 성향의 슈나벨 ECB 이사가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언급하는 등 완화적 스탠스 보인 측면이 달러의 상대적 강세 견인한 영향으로 상승세
- 후반, 미국 고용 관련 지표 둔화에도 금리인하 기대 보다는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심리와 역외 매수세 등에 환율은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 BOJ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 언급에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 높아지면서 엔화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 영향 속 큰 폭으로 하락 후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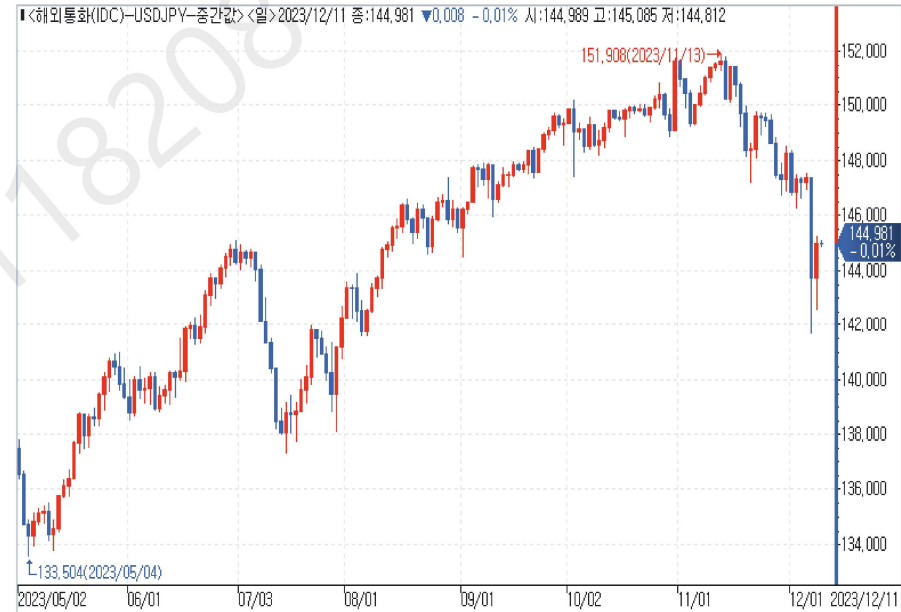
- 전주 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견조한 양상을 보인 영향이 최근 CPI 감소세 영향을 상쇄하며 달러 강세를 다소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미국 소비심리 지표 개선 등도 연준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중 환율 상방 압력이 다소 높게 나타날 전망
- 하지만, 미 경제 연착륙에 따른 뉴욕증시 상승 등이 국내 증시 상승 견인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속에 연말에 근접하며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 확대 가능성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96.4	1,327.2	1,295.6	1,306.8	+10.4

예상거래범위

1,305원 ~ 1,325원

엔·유로화 동향 (12/4~12/8)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점증으로 ECB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로화 약세 출발. 이어, 미국 고용시장 냉각 가능성에도 시장은 ECB가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 약세 지속
- 중반, 독일 10월 산업생산 지표가 예상과 달리 감소세 기록하는 등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유로화 약세 심화
- 후반, BOJ 정책 전환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 견인한 영향으로 유로화 약세 제한. 이어 주 후반, 독일 11월 CPI 확정치가 3.2%로 전월 대비 둔화된 가운데 ECB의 조기 통화정책 피벗 기대 지속됨에 따라 약세 이어지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80	1.0895	1.0724	1.0764	-0.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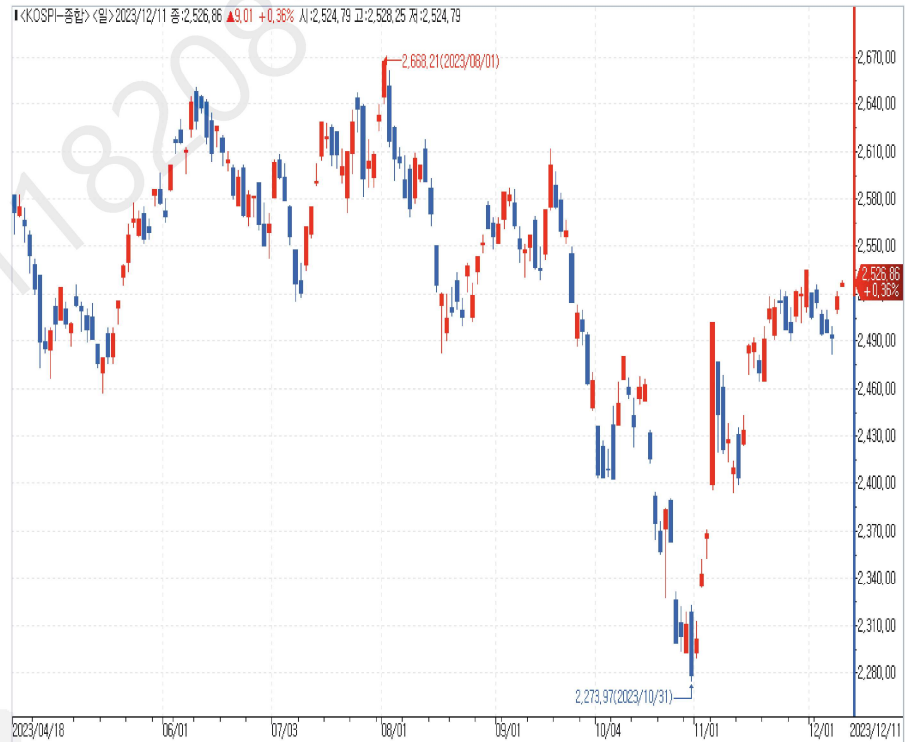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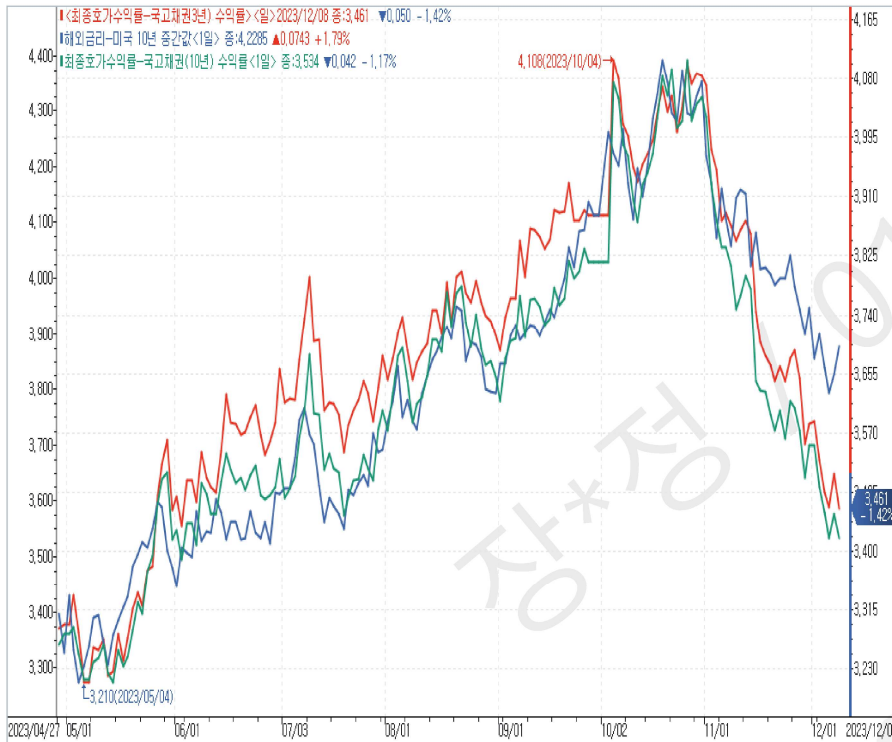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조정에 따른 미 국채금리 반등과 달러 가치 상승 영향 반영하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주요국 통화정책 간 차별화 예상 속 BOJ의 정책 변화 가능성 제기되면서 소폭 강세로 전환
- 중반, BOJ 인사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성 강조 등에 강세 제한
- 주 후반, 우에다 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와 방향성 등에 대해 언급한 이후 초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 형성됨에 따라 큰 폭의 강세 시현. 이어 주 후반,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고용지표에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되며 엔화 강세의 일부 되돌림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8	147.5	141.6	144.9	-1.9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4~12/8)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파월 의장 발언(조지아주 스펠만 대학)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시장의 내년 3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등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출발. 이어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반영 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수 확대 등으로 3.5% 하회 양상 시현
- 중반 들어,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 의한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를 보임에 따른 긴축 우려 완화 영향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었으나, BOJ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출구 전략을 고려 중이란 시장 인식 등의 영향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도 반등 양상 시현. 이어 주 후반, 일본 통화정책 변화 기대 반영에 따른 영향 동조 속에 상승세 이어갔으나, 미 고용지표 경계감 등에 따른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시장의 비둘기파적인 해석,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 등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 반영 등으로 코스피 상승 출발. 이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상승분의 일부 되돌림 속에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진 가운데 뉴욕증시 기술주 하락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고용지표의 약화에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유입되었다는 인식 등이 상충하며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된 가운데 혼조 흐름
- 후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유가 급락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코스피도 미 증시에 동조화하며 위험 선호 위축 속 하락 추세 이어진 후, 주 후반, 시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